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CNN Business: 미국인 과반수, “바이든 정책이 미국 경제 악화시켜”
- Bloomberg: 뉴욕연방은행 총재, “통화 정책 양호...지표에 의존해야”

[미국 금융]

- WSJ: 채권 판매 급증하는 가운데 회사들 차입 비용 커져
- Bloomberg: 달러의 지속적인 상승세는 유가 상승 때문

[에너지]

- Bloomberg: 글로벌 가스 가격 급등... LNG 근로자들 파업 탓

[물류]

- WSJ: 벤처 투자자들 “AI, 공급망 관리 개선할 수 있어”

[부동산]

- WSJ: 미 주택 가격 하락 끝나다
- CNN Business: 모기지 금리 2주 연속 하락 불구, 여전히 7% 상회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소비자들 “오프라인 쇼핑 어려움↑”
- Bloomberg: 미 소매업 종사자 지친다. 퇴사사상 최대
- Bloomberg: 중국 자동차, 8월 최고 판매치 기록
- WSJ: 월마트, 신규 직원에 임금 줄여
- WSJ: Apple “미중 관계 악화에 큰 타격 입어”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CNN Business: Why Biden’s strong economy feels so bad to most Americans

미국인 과반수, “바이든 정책이 미국 경제 악화시켜”

- 객관적인 지표들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바이든 행정부 3년 전 취임 때보다 경제 상황이 더 나은 상황으로 보인다.
- 그러나 SSRS가 실시한 CNN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58%가 “바이든의 정책이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답했다. 1년전의 50%에서 늘어난 것.
- 그런데 실제 경제 상황은 현재가 좋은 상황이다. 실업률도 낮은 상황이고 실질 임금도 올랐다.
- 이 같은 현실과 인식의 차이점은 인플레이, 하우스징, 좋지 않은 정책 때문이라는 것.
- 물가가 팬데믹 전인 2019년보다 18% 오른 상태라고 연방 노동통계는 밝혔다. 그리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 더욱이 모기지 7%를 상회해 바이든 취임 당시의 역사상 거의 낮은 2.65%때보다 크게 상승했다. 주택 가격도 평균적으로 2019년 25만8천불에서 41만6천1백불로 뛴 상태다.
- 마지막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은 바이든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공화당원의 2%만이, 심지어 민주당원의 48%만이 바이든 경제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Fed's Williams Says Policy in Good Place, Must Be Data Dependent

뉴욕연방은행 총재, “통화 정책 양호...지표에 의존해야”

- John William 뉴욕연방은행 총재는 “미국 통화정책은 양호하지만 연준 관리들은 이자율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지표들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그의 발언은 연준의 통화정책이 제약적인 입장(restrictive stance of policy)을 보이고 있어 양호하다 입장이라는 것이다. 즉, 연준의 금융정책이 수요와 공급을 맞추고 인플레이를 완화하는 바람직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연준이 금리를 크게 올림으로써 큰 일을 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 그는 그와 동시에 인플레이를 2% 목표로 낮추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Companies Pay More to Borrow in Record Bond Rush

채권 판매 급증하는 가운데 회사들 차입 비용 커져

- 기업들의 차입비용이 10년전보다 커지고 있다.
- 차용 비용이 15년만에 최고치가 될 정도로 채권 수익률이 크게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규모로 채권을 발행했다.
- PitchBook에 따르면 Duke Energy, Southern, Philip Morris International을 비롯한 19개 기업들이 미국 투자 등급 시장에 47개의 채권 트랜치(tranches)를 판매했다.
- 이번 주 화요일 채권 판매량이 무려 총 3백80억불이었다. 이번 주 우량 기업들은 평균 5.7%의 이자율 지불로 채권을 발행해 최고 이자율 수치를 보였다.

WSJ 기사

Bloomberg: Dollar's Relentless Rally Set for a Boost From Higher Oil Prices

달러의 지속적인 상승세는 유가 상승 때문

- 미국 경제가 수출국으로 부상해 혜택을 받는 가운데 오일가 상승이 향후 달러 상승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 Societe Generale SA, State Street Trust 기업들의 전략가들은 원유가 상승 전망이 미국의 경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달러가 사상 최장의 주간 랠리를 연장시킬 것으로 보인다.
- 유럽과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은 오일과 가스 수출은 수입보다 더 많이한다. 따라서 오일가 상승이 유로화나 엔화 같은 통화를 약화하는 대신에 반해 달러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 최근 유가 급등은 유로 경제가 2분기에 확장되지 않았던 현상과 일치하면서 유럽중앙은행이 성장 전망을 낮추고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에너지]

Bloomberg: Gas Prices Jump as LNG Workers Begin Long-Awaited Strikes

글로벌 가스 가격 급등... LNG 근로자들 파업 탓

- 글로벌 가스 시장을 흔들고 있는 분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호주지역에 있는 셰브론 주요 사업장에서 일하는 LNG 근로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 이로 인해 유럽 벤치마크 선물 가격이 13%나 뛰는 사태가 발생했다. 아시아 현물 LNG도 5% 상승했다.
- 이번 파업으로 여파를 받는 규모는 2022년도 글로벌 공급의 7%가 영향을 받게 됐다.
- 파업 관련 노조 Offshore Alliance union 회원들은 오는 14일부터 2주간 업무를 전면 보이콧 하겠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물류]

WSJ: Venture Investors Bet AI Can Improve Supply-Chain Management 벤처 투자자들 “AI, 공급망 관리 개선할 수 있어”

- 벤처 투자자들은 새 공급망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AI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물류는 관리해야 하는 데이터가 많아 AI로 재편되기 적합하다.
- “AI는 다양한 데이터를 구조화 하여 어떤 품목이 언제 도착할 지 등을 예측 가능하게 해준다”고 벤처 기업 Eclipse 파트너인 Kaitlyn Glancy가 말했다.
- AI는 물류 회사의 효율성을 높여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 또한 소매업체가 공급 경색을 피할 수 있게 하며, 소비자는 상품 도착 시기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 물류 제공업체와 화물 운송업체가 AI 도구를 사용하면, 일정과 계획, 가격 등을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PitchBook Data 애널리스트 Jonathan Geurkink이 말했다.

WSJ 기사

[부동산]**WSJ: The Fall in Home Prices May Already Be Over
미 주택 가격 하락 끝나다**

- 주택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던 미 주택 가격이 7월에 상승한 것.
- 가장 큰 이유는 매물의 희소성 때문이다. 높은 이자율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물로 나온 재고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했다.
- 그 결과 현재 전체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한 시장이 되었다. 주택 판매량은 현재 전년 1월 대비 약 36% 감소했다.
-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7월 기존 주택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 대비 1.9% 상승한 40만 7천 불을 기록했다.

WSJ 기사

CNN Business: Mortgage rates drop for a second week, but remain above 7%**모기지 금리 2주 연속 하락 불구, 여전히 7% 상회**

- 미 모기지 금리가 2주 연속 하락했지만 여전히 7%를 상회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서 4주 연속 7%를 상회한 것.
- Freddie Mac에 따르면 30년 고정금리 모기지는 9월 첫째주에 7.12%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 대비 0.06%p 하락한 수치이다.
-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시작했지만 이번 주에도 모기지 금리가 상승했다. 이는 구매력이 감소한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 즉, 낮은 재고와 높은 비용이 계속되기 때문에 주택구매자를 압박하고 있는 것.

CNN Business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It's Not Your Imagination—Shopping in Person Is Getting Worse 소비자들 “오프라인 쇼핑 어려움↑”

- 더 많은 오프라인 소매업체가 적은 수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도난 방지를 위해 상품을 캐비닛에 넣어 잠궈두기 때문에 직원을 불러야만 꺼낼 수 있다.
- 판매 둔화와 도난 증가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매업체의 대응책은 오프라인 쇼핑에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가파른 연간 임금 상승률은 소매업체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연방 노동 통계에 따르면 소매업 부문 직원 평균 임금은 2019년 대비 24% 상승했다.
- 소매업계는 2020년부터 직원 수를 줄이기 시작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적이 없다. 2022년 미국 소매업체 수는 2019년 대비 1.5% 증가했지만, 소매 판매직 근로자 수는 12% 감소한 것.
- 게다가 인력 부족은 소비자들의 오프라인 쇼핑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매장 직원들은 온라인 주문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고객을 도울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WSJ 기사

Bloomberg: US Retail Workers Are Fed Up and Quitting at Record Rates 미 소매업 종사자들 지친다. 퇴사 사상 최대

- 낮은 임금과 불규칙적인 일정 그리고 단조로운 업무가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8백만 근로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전의 팬데믹으로 인해 세금 또한 늘었으며 직원들은 잦은 절도와 고객들의 난폭한 행동들을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 2022년 한 McKinsey 연구는 소매업 종사자의 퇴사율이 다른 사업 분야보다 70% 더 높았다고 조사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문제가 더 커졌다고 한다.
- 팬데믹은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온라인 쇼핑을 하도록 영향을 줬다. 이것은 결국엔 재고가 쌓이는 공급망 문제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됐다.
- 소매점들은 비용을 줄이고 종업원 숫자를 줄여 이윤을 올려야 했다. 이는 소매업에서의 종업원 감소에 영향을 줬다.

Bloomberg 기사

Chinese Car Sales Hit Record High for August on Export Growth 중국 자동차, 8월 최고 판매치 기록

- 중국이 8월에 2백 24만여 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이것은 올해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은 수치이며, 침체한 경기 속에 최고 기록이다.
- China Passenger Car Association은 이번에 판매한 중국산 전기차와 플러그형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매량은 71 1만 6천여대로, 이는 2022년 8월보다 35%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 Counterpoint는 중국을 제외한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3분기에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 수치는 지난 분기에서 9% 상승한 것이다.

Bloomberg 기사

Walmart Cuts Starting Pay for Some New Hires 월마트, 신규직원에게 임금 줄여

- 월마트가 새 직원들에게 3개월 전보다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과열됐던 노동시장이 식으면서, 고용주들이 임금을 줄이고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
- 미국의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고, 많은 미국인이 일자리를 찾게 되면서, 이번 8월의 실업률은 7월의 3.5%보다 높은 3.8%로 상승했다.
- 월마트는 임금을 줄이기 위해 신입 직원들에게 더 낮은 임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는 않는다.

WSJ 기사

WSJ: Apple Becomes the Biggest U.S.-China Pawn Yet Apple “미중 관계 악화에 큰 타격 입어”

- 애플이 미중 관계 악화로 큰 타격을 입었다.
- 중국 정부는 중앙 정부 기관 직원들에게 아이폰 및 기타 외국 브랜드 기기 사용을 금지했다.
- 또한 이 금지 조치는 국유 기업(중국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기타 정부 지원 기관까지 확대될 수 있다.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1년에 약 6천만 명의 도시 근로자가 국유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 애플은 매년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3천만 대의 아이폰을 출하하고 있다. 6천만 명의 잠재적 구매자가 없어진다는 것은 큰 타격이다.
- 애플의 주가는 지난 이틀 동안 7% 가까이 하락해 약 2천 억 불의 시장 가치를 잃었다. 한편 중국의 한 도시에서만 1백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애플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달러 가치 6달만에 최고... '경제우려' 위안화는 사상 최저 수준

역외위안/달러, 2010년 시장 생긴 뒤 최저 수준 근접... 원/달러는 1,333원대
달러인덱스, 7월 저점 대비 5% 넘게 올라... 8주 연속 상승 전망
엔/달러 환율 10개월 만에 최고... 유로 가치 3개월 내 최저

미국의 고금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달러화가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아직 '킹달러'로 불렸던 지난해 9월 수준에는 못 미치고 원/달러 환율도 그때보다 낮지만, 경제 둔화 우려까지 겹친 중국의 위안화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